https://doi.org/10.14400/JDC.2017.15.7.191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신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와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 이미향**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on the ability of newly recruited nurses in execution of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and turnover rate

Jung Hee Park*, Mi Hyang Lee**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y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취업 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와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당 병원에 취업한 간호사 와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병원에 취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군 전후설계 및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취업 전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는 높게 나타났으며,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간호사의 입사 후 1개월 이내 이직율은 감소하였다. 병원 취업 전 간호대학생때부터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규 간호사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의 임상실습 교과과정 개발과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육프로그램, 간호사, 임상수행능력, 비판적사고, 이직율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applied to the nursing student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ir employment on the ability of the newly recruited nurses in execution of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and turnover rates. It is a single-group pre-post design a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As fo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nurses who participated in the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prior to employment displayed an increase in their ability to execute clinical competency and critical thinking capabilities along with the reduction in their turnover rate within 1month after their employ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form the stage of nursing school years prior to employment at hospital in important and the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attempted as a new means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for new nurses can be used as a beneficial program at the time of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at the hospitals ans nursing schools

Key Words : Education program, Nurse,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Turnover

Received 2 June 2017, Revised 30 June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Mi Hayng Lee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 haha@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간호사의 인력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며[1], 간호사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그러나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자수 대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비율은 45.5%이며, 간호사의 평균 이직율은 16.9%이고 이 중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이 31.2%이었다[3]. 신규간호사의 잦은 이직은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모집, 선발,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경제적, 인력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 개인에게도 손실이 된다[4]. 신규간호사는 병원현장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5,6] 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은 프리셉터 교육, 오리엔테이션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 취업 후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며 취업 전에 병원에 대한 적응 훈련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전부이다.

신규 간호사는 간호학생 때부터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7,8],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9].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현장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고, 생각하는지 간호의 중요성을 느끼고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방법을 관찰하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사회화의 길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11].

그러나 사실상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1,000시간 가량의 임상실습을 받고 있지만 졸업 후 1년 동안 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오리엔테이션과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의 임상실습교육내용이 관찰위주의 교육, 활력징후 측정, 시트 교환 등 반복적인 단순업무, 환자 이송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전체적인 간호사의 실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11]. 또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 및 증설이 되어 단기간 내 양적팽창이 이루어지면서[12] 임상실습에 투입되는 간호대학생수가 급증하였고, 간호대학생 대비 실습병원이 부족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의 내용과 질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3,14].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부터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5].

또한 신규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고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16]. 비판적 사고능력은 간호실무와 간호교육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18]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환자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하여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16]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간호학생 임상실습 시 실습을 경험했던 병원에 취업한 신규간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19]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은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16]. 비판적 사고능력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21]. 수용적인 임상실습환경은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킨다[22]. 이렇듯 임상현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연계하여 간호대상자를 능숙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간호사를 배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8].

신규간호사가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기간내에 이직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는 입사 후 1년 동안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 간호업무에 필요한 직무지식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이직을 고려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전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후 취업 후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능력과 입사 후 1개월 이내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취업 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 비판적 사고와 이직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1개월 이내 이직율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에게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와 이직율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 및 비 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는 K대학병원의 신규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 power program(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에 근거하여 t 검정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35, 유의수준 .05, 검정력 88%을 하였을 때 각 67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K 대학병원에 취업을 희망하고 K 대학병원에서 학생임상실습을 실습한 89명 중 본원에 임용되어 설문에 응한 71명과 본병원에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입사한 신규간호사 중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

박선환(1999)이 개발하고 고금자(2003)가 사용한 도구로서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영역별 문항수는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 정직 6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금자[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79 이었다.

2.3.2 임상수행능력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하고 최현영[24]이 수정한 도구에서 간호과정지도는 제외하고 간호학과 교수 1인과 간호팀장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한 20문항으로 구성된 6점 척도이다. 하부영역별 문항수는 간호기술 10문항, 교육/협력관계 6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2문항, 전문적 발전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현영[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3 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설계 및 비 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로 실험군은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신규간호사로 입사 후 1개월 시점에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조사하였으며, 이직율은 간호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2.4.1 실무중심 임상실습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은 K 대학병원의 교육위원회에서 임상실습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병동 파트장들과 Preceptor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K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고, 병동과 특수부서의 특성에 맞는 실무중심의 임상실습 교육계획안을 부서별로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실습기간은 필수 40시간과 부서실습 20시간 이상이 소요 되었으며 실습부서에서는 담당 preceptor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실습기간동안 부서별로 시행되는 간호술기를 간호대학생이 직접 시뮬레이션 한 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중심실습프로그램 적용기간 동안 교육팀장이 실습 부서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적용 진행상황을 매일 확인하였다. 부서마다 공통되는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Categories	Contents	Specific contents	Educational methods
1	Orientation	Introduction of hospital wards Key 3-shift works Change over procedures Key diseases	Nursing personnel and nursing delivery system Inspection of items for each working group Time and method of change over Names of key diagnosis	Explanation
2	Management of nursing safety	Accurate identification of patients Safety management related to hospitalization life Management of medical equipment means of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	Method of confirmation of the patient Fall assessment, bedsore, SBAR, oral prescrition Education on equipment Emergency codes	Explanation Simulation
3	Infection management	Handhygien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ontagious diseas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legal infectious disease	Method and time of handhygiene Contact, air-borne, droplet precauti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imulation
4	Computer works and EMR	Order Computer system(OCS)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Method of access to and use of OCS Method of access to and use of EMR	Simulation
5	Administration of drugs	Nursing for administration of drug	Method of computation and measuring of medical drugs Method of connecting fluid injection set Blood transfusion method	Simulation
6	Tests, Processing, Medical procedures	Nursing prior to and after tests, processing, medical procedures conducted mostly in the hospital wards		Explanation
7	Surgery	Nursing prior to and after surgery conducted mostly in the hospital wards		Explanation
8	Core manual technique	12 core manual technique test		Evaluation
9	Critical item	Production of simualtion for nursing skills		Presentation

2.5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D 광역시 일 대학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전에 해당 병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IRB No.2016-07-007-003)을 받았다.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였고, 조사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실무중심 임상실습프로그램은 2016년 7월 15일~ 2016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60시간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후 조사는 신규간호사 입사 후 1개월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본병원에서 실무중심 임상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입사한 신규간호사 중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을 하였으며,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와 임상실무능력의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와 임상실무능력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서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하였다<Table 2>.

<Table 2> Verification of equivalence of th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and having no participated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n=142)

Variables		Participated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X^2	p
		Yes (n=71) n(%)	No (n=71) n(%)		
Gender	Male	7(9.9)	7(9.9)	.00	1.0
	Female.	64(90.1)	64(90.1)		
Age	<23	11(15.5)	11(15.5)	.159	.971
	24~25	43(60.6)	41(57.7)		
	>25	17(23.9)	19(26.8)		
part	General	34(47.9)	40(56.3)	.706	.501
	Special	37(52.1)	31(43.7)		

3.2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의 프로그램 적용 전·후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차이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 4.14점에서 적용 후 4.32 점으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14, p=.030). 임상수행능력 하부영역에서 대인/의사소통이 4.08점에서 4.50점(t=-4.691, p<.001) 전문직 발전은 4.24점에서 4.47점점으로(t=-2.049, p=.044) 높아졌다. 비판적 사고는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 적용 전 3.41점에서 적용 후 3.6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6.318, p<.001). 비판적 사고의 하부영역에서는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이 3.26점에서 3.60점(t=-6.829, p<.001), 신중성은 3.43점에서 3.69점(t=-4.316, p<.001), 객관성은 3.23점에서 3.66점(t=-5.51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execute clinical competency and critical thinking prior to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n=71)

	Variables	Pre (M±SD)	Post (M±SD)	t(p)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kills	4.09±.69	4.13±.66	- 456 (.650)
	Teaching/ coordinating	4.16±.63	4.18±.66	- 224 (.823)
	Relationship/ Communication	4.08±.66	4.50±.49	-4.691 (<.001)
	Professional development	4.24±.79	4.47±.63	-2.049 (.044)
	Mean	4.14±.56	4.32±.52	-2.214 (.030)
Critical thinking	Intellectual compassion/ sound skepticism	3.26±.40	3.60±.31	-6.829 (<.001)
	Intecllectural honesty	3.71±.41	3.78±.48	-1.151 (.254)
	Prudence	3.43±.40	3.69±.40	-4.316 (<.001)
	Objectivity	3.23±.55	3.66±.44	-5.105 (<.001)
	Mean	3.41±.27	3.68±.29	-6.318 (<.001)

3.3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차이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임상수행능력은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4.32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들은 3.9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90, p=.002). 임상수행능력 하부영역에서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모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3.68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들은 3.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266, p<.001). 비판적 사고의 하부영역에서는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신중성, 객관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in the critical thinking and ability to execute clinical competency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ipation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Variables		Participated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t(p)
		Yes (n=71) (M±SD)	No (n=71) (M±SD)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kills	4.13±.66	3.78±.76	2.857 (<.001)
	Teaching/ coordinating	4.18±.66	3.92±.84	2.037 (.044)
	Relationship/ Communication	4.50±.49	4.02±.90	3.855 (<.001)
	Professional development	4.47±.63	4.16±.90	2.351 (.020)
	Mean	4.32±.52	3.97±.79	3.090 (.002)
Critical thinking	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3.60±.31	3.24±.32	6.586 (<.001)
	Intecllectural honesty	3.78±.48	3.79±.39	-.063 (.950)
	Prudence	3.69±.40	3.33±.37	5.457 (<.001)
	Objectivity	3.66±.44	3.16±.54	6.076 (<.001)
	Mean	3.68±.29	3.38±.28	6.266 (<.001)

3.4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2월~3월에 입사한 신규간호사 중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 89명,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90명의 이직율은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의 1개월 이내 이직율은 2.24%,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의 1개월 이내 이직율은 5.55%으로 참여한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X^2=1.303, P=.444)<Table 5>.

<Table 5> Turnover rate of newly recruited nurses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and having not participated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al program

Variable		Recruited nurses	No. of resigned nurses	Turnover rate	X^2	p
Participated in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Yes	89	2	2.24	1.303	.444
	No	90	5	5.55		

4. 논의

본 연구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와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신규간호사의 병원 취업 후 병원조직의 사회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보다 임상실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Kang 등[2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같았다. Lee [26]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시 프리셉터의 실습지도를 받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졌으며, 임상실무능력의 하부영역에서도 간호기술, 교육/협력, 대인/의사소통, 전문적 발전 모든 영역에서 높아졌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규간호사의 이직 원인이 실무능력 부족,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보면 신규간호사에게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입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관찰위주에서 탈피하여 직·간접관찰과 실무를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진 것은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임상실습지도자의 태도,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지도자를 위한 다양한 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가 프로그램 참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Lee[2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시 프리셉터의 실습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이 프리셉터의 실습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점수가 높았고, 하위영역인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지적정직, 신중성, 객관성 점수 모두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Choi 등[27]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 있어서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은 문제 해결능력과 의사소통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른 이직율은 실무중심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함에 따라 임상실무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아졌고, 또한 근무할 병동을 병원취업 전에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Lee 등[2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신규간호사가 병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신규간호사가 입사 후 낯선 환경에서 다른 의료인, 선임 간호사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려워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4].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이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일부 경험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간호실무와 간호의 조직문화를 일부 경험함으로써 병원 취업 후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오랜 시간 임상실습을 받고 있지만 입사 후 신규간호사가 되면 다시 수개월간의 교육을 받는다. 임상에서의 재교육기간 동안 신규간호사들은 많은 갈등과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은 재교육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직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Lee 등[11]의 연구에서는 사직한 신규간호사의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직의도와 관련 있었으며 실습내용, 학생태도 그리고 학습지지자와 실습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앞으로 현재의 실습교육체계를 개선하여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높여 신규간호사의 사회화를 향상시켜 간호사의 이직율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비판적사고, 임상수행능력,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실무중심 임상실습프로그램은 간호사의 비판적사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간호사 이직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와 병원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계획시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교육은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수업을 강화하여 비판적 사고를 높이며, 핵심기본간호술을 임상실습시 교수 또는 간호사 감독 하에 가능하면 직접 환자에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병원은 실습학생이 간호사의 감독 하에 원칙에 맞게 직접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의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실무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원은 이런 변화에 맞추어 간호대학생이 직접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임상실습이 종료된 후 학교와 병원의 관리자가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교차 평가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중심 임상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관리자와 임상지도자의 비판적 사고, 임상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H. H. Park & K. O. Lee, S. O. Kim.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clinical nurses in job tr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19-329,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8.319.

[2] H. I. Park & K. H. Lee. "The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325-336.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4.325

[3]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nurse's activities. 2014.

[4] S. S. Han, I. S. Sohn & N. E. Kim. "New nurse turnover intention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9, No. 6, pp. 78-887,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78

[5] J. H. Kim & S. A.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a nursing organizational effective in staf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1, pp. 97-105, 2007.

[6] Y. M. Kim & S. N.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experience of turnover in new graduate nurses within one yea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4, pp. 97-106, 2016.

[7]] H. S. Park &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6, No. 3, pp. 695-706, 2015.

[8] Y. O. Ha & J. Y. An.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223-231, 2017.

[9]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16, pp. 64-76. 2002.

[10] C. Barrett &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11] H. Y. Lee, H. S. Lim & M. Y. Kim, "The clinical practice of newly graduated nurses who are resigned."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2, No. 1, pp36-48, 2011.

[12] S. H. Bae &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203-214, 201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3

[13] Y. S. Kim, J. W. Park, H. S. Kim, M.. S. Yoo, K. S. Bang & J. H. Park.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nurses on clinical practice teaching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colleges and clinical nursing departm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 292-300, 2007.

[14] H. H. Han.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355-362. 2016.

[15] Y. R. Lee & H. L. Kang. "Effects of mentoring seni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441-448.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11.441

[16] J. A. Park, B. J.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s. Vol. 39, No. 6. pp. 840-850. 2009.

[17]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2 pp. 222-231, 2005.

[18] K. A. Shin &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19] Y. W. Shin, H. J. Lee & Y. J. Lim,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1, pp. 37-47, 2010.

[20] E. K. Lee & J. A. Park. "Ego-resilia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 293-303,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21] J. Y. Lee & S. Y. Park.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environme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2, pp. 145-153,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2.145

[22] F. Myrick. "Preceptorship and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1, No. 4, pp. 154-164. 2002.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020401-05

[23] K. J. K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Kwandong Uinvertisy. 2003.

[24] H.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1.

[25] Y. S. Kang, H. Cho & Y. S. Roh. "The effects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1, pp. 13-20, 2006.

[26] J. D. Lee. "The Study of preceptor-guided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27] E. Y. Choi & J. Y. Kim. "The Relationship of core competencies(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4, No. 4, pp. 412-419, 2007.

박 정 희(Park, Jung Hee)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보건학 박사)
- 2017년 2월 : 건양대학교응급구조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교육, 응급간호
- E-Mail : jhpug@konyang.ac.kr

이 미 향(Lee, Mi Hyang)

- 1998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환자안전
- E-Mail : haha@konyang.ac.kr